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5.31.(수)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 시청자평가원 선임 안건

- 시청자위원회는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프로그램(바로보는TV 옴부즈맨)에 현재 출연 중인 이동준 시청자평가원이 홍콩 린남대학교 방문조교수로 출강에 따른 시청자평가원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후보추천위원부터 후보자 박세진 교수를 추천 받음
-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문성, 경력 등 검토와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법(방송법 제88조) 및 규정(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시청자평가원 운영규정)에 따라 박세진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함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달에도 공영언론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이슈를 신속하게 의제화해, 공론장에서의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뉴스는 연합뉴스TV의 강점 분야입니다. 연합뉴스 해외 특파원 망과 자체 특파원을 통해 국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특히 이번 5월 G7회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테러 사건, 아덴만 훈련 등 세계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의 국제뉴스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문화가 세계적인 구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제뉴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주목을 받았으면 합니다. 살펴볼 대목도 있었습니다. 5월 중순 이탈리아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 기사는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제형성과 분석이 돋보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홍수 재난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이탈리아 재난방재청에 해당하는 Vigili del Fuoco 로고가 처음에는 선명하게 나오다가 다음부터는 흐릿하게 blur 처리돼 제공되었습니다. Vigili del Fuoco는 해당 영상 촬영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기관의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촬영자와 제공자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뉴스의 경우 영상 출처와 제공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파원 기사의 경우 영상편집자는 명기하는데, 영상 촬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언론으로서 영상 source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막을 통해 제공처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이라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호 MOU를 체결해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탈리아 소방청 로고가 중간에 흐릿하게 처리가 된 것은 우상단의 연합뉴스TV라고 로고와 겹쳐서 이탈리아 소방청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저희와 계약이 돼 있는 영상 제공 업체 AP라든가 로이터, CCTV 등에서 그 영상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원 소스를 표시할 수는 있는데요. 관행이 구매를 한 영상에서 들어온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원소스를 잘 표기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 소스에서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기를 하고 있고요.

▲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저희가 금방 본부장이 얘기한 AP나 로이터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맺고 영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간 한국 실사단 그 영상은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NTV가 그 영상을 거기서 취재를 했고 그것을 AP가 그림을 사서 AP와 계약돼 있는 전 세계 방송사들에게 뿌립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클린 픽처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상, 우상, 자막, 만약에 그게 NTV 그대로 나왔다면은 NTV 온 에어 영상을 썼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막이 들어가고 우리 로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화면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들은 클린 픽처를 위주로 해서 그림을 주기 때문에 금방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NTV가 이것은 NTV임을 밝혀달라라는 리스트릭션을 갖다 달기 전까지는 그냥 클린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첫째, 5월 20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은 요즘 한창 관심을 모으고 있는 AI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AI서비스인 '바드'가 chatGPT 등의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를 지원하게 되면서 국내 IT업계에도 직접적인 경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AI의 도입이 가져오는 각종 이슈 - 일자리 잠식, 양극화의 심화, 가짜뉴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6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폭넓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AI와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지 않았던 소득수준의 차이로부터 비롯하는 접근 가능성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의 가능성에 대해 다룬 점인데요. AI가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 집어준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둘째, 5월 22일 뉴스17에서는 공공기관 평균 연봉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만 원이고 15곳은 1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 원이 15곳 중 9곳은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공공기관 중 가장 평균 연봉이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1억 1,709만8,000원이고,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라고 했는데요. 기사의 의도가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과도하게 높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사의 비교 대상이 잘못된 느낌입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은행 등인데요. 제대로 된 비교라면 유사한 규모의 민간은행, 민간연구소의 평균 연봉과 비교했어야 합니다. 현대자

동차는 제조업으로서 맞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는 기술·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도 단순한 비교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막 스크롤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5월 22일 '뉴스리뷰' 프로그램 오후 8시 39분에 스크롤 기사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하면..."이라는 자막 스크롤이 여섯 번 연속 반복 송출 되었습니다. 이후 '뉴스투나잇' 프로그램에도 오후 9시56분까지 스크롤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막 스크롤 실수는 사소한 거라 생각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송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일 여의도 풍향계의 "고무신 선거의 망령..정국 흔드는 돈 봉투 파문"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 리포트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건들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1967년 제 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발생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도 소개하며 한국정치사의 매표 선거를 비판했습니다. 리포트는 한국정치사의 치부로 승리 지상주의와 도덕 불감증을 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리포트였지만 왜 이렇게 정당법이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만들어졌는지, 정치 역사적 사례에 정당법 개정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었으면 더 이해하기 쉽고 통렬한 비판적인 내용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받고 있는 의혹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2004년인데요.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823억을 불법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민주당도 노무현 후보 캠프가 113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건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1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했습니다. 이때에 당내 경선에서 금품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이 조항이 구체화 되면서 현재의 제 50조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 대표 선거의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항입니다. 2004년 이후 거의 20년간 유지된 체제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행일 뿐'이라던가 '식대 수준'같은 발언을 하는 건 안이한 인식을 넘어 '자기부정'에 가깝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돈 봉투 선거 관련 보도 의견 주신 것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평균 연봉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연구소,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단순 제조 유통업체와 연봉이 같을 수가 없겠죠. 현대자동차도 직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명확한 비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같은 스크롤이 6개 동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다. 스크롤을 만드는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기술부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 허인순 위원

- 빗더미 투자자들 "추심 연기를"...당국 "지원 부적절" 송고시간 2023-05-10 06:27:31,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는 최대 2.5배까지 빗을 내 레버리지를 삼는 상품을 통해 투자해 손실이 더 큼.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빗 감당이 안 된다며 채권 추심을 미뤄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 당국은 고위험 투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2.5배까지 빗을 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인 차익결제거래, CFD 상품을 통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과 함께 주식거래 방법의 하나인 CFD에 대해 CG, 자막, 자본시장 전문위원 전화 인터뷰를 활용해 피해자들과 금융위 측 입장 전달 내용을 보면서 비전문가들인 일반 시청자들이 CFD라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보도 시간 내 잘 구성된 보도 자료라 생각합니다.

- [속보]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히 진상조사도" 2023-05-10 12:33:20, 뉴스 진행 중 짧은 속보 보도였는데 진행 앵커우먼의 내용 전달이 마치 논객이 자기 주장 전달하듯 함. 속보일수록 객관적 전달이 중요하다 봄,

- '닥치고 AI'...투자도 규제도 선도 K-AI 안될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3-05-20 22:00
생성인공지능 서비스를 둘러싼 글로벌테크, 한국테크기업들이 영어권 보다 자신들의 GPT 출현 지연, 오픈AI의 일자리 습격(헐리웃 작가들의 파업 등), 챗GPT 인간대체재로 각광, AI 고급기능 활용 장려 등으로 문제점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부정적, 긍정적 메시지로 유익했음, 뉴스프리즘 이슈 소개 시 1분 50초까지 자막 변경 시 마다 기계음(숙하는)이 반복되어 듣기 불편했음/ 4분,4분 27초 전문가 인터뷰는 너무 갑자기 끊겨 부자연스러운 편집이었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속보 관련 정보를 전달한 방식이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대담하듯이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내용을 봤습시다마는 보통 단신이나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속보가 뜰 경우는 그 분위기에 맞게 좀 진지하고 엄숙하게 건조하게 속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정치 대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더군다나 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를 아이템으로 대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 입장에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들어간다고 한 것이 오히려 스트레이트와는 맞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뉴스프리즘 자막 변경 시마다 기계음 나는 건 효과음입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계음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끊기는 느낌이 난다는 것은 편집을 잘못된 거겠죠 그 부분도 전달을 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동해 지진 관련 보도 시 기사 발제와 리포트 구성상 아쉬움 있어, 지난 15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해역에선 지난달 23일부터 이전까지 30여 차례의 미소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튀르키예 지

진 참사 이후 국민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언론에서는 동해 지진을 비중 있게 다루었음. 연합뉴스TV에서도 15일 당일 오전 6.45분 속보를 내보낸 이후 5.16일까지 16건의 관련 뉴스를 내보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됨. 무엇보다 연합뉴스TV에서는 기상전문기자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지진과 관련한 뉴스를 비교적 잘 다루고 있음. 지난달 26일에는 동해에서 과거 규모 6 정도의 큰 지진도 있었던 만큼 단층 조사가 필수인데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꼬집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규모 4.5의 큰 지진이 있던 지난 15일 저녁뉴스 시간대에는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놀란 반응과 함께 최근 해당 지역에 30여 차례의 미소지진이 발생한 만큼 원전 관계자와 김진태 강원지사를 연결해 원전 안전성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리포트함.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연한 위험이 아닌 실체적 위험이 돼 가고 있는 만큼 막연한 대비책 주문보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 해안가 지진 대피 시설과 안내판, 지진대피 훈련과 교육 실태, 해저 지진 예보 체계 등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 점검해 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뉴스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안일하고 평이한 기사 발제이자 리포트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향후 뉴스 제작 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외국 특파원 보도 시 추가 취재 없는 단순 외신 전재 행태 개선해야, 지난달 4.21일 연합뉴스TV 미국 특파원은 '애플의 간택은 죽음의 키스(?)...'라는 뉴스를 통해 애플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를 적나라하게 리포트해 시청자로서 매우 흥미롭게 시청함. 뉴스 내용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자국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반발할 경우 긴 법정 싸움으로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마치 국내에서도 종종 논란이 되는 대기업의 '갑질'을 미국판으로 보는 것 같았음. 이 뉴스의 취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로 연합뉴스TV 미국 특파원이 다시 정리해 국내에 리포팅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는 특파원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단순 전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 또한 리포트의 구성도 애플 같은 글로벌기업도 중소기업 기술을 약탈하고, 법정 소송으로 갑질한다는 가십성 내용이 전부여서 이 뉴스를 국내에 전하려 핵심 주제를 시청자로서 파악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번 애플의 갑질 뉴스도 리포트 구성상 미국의 경쟁 당국이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불이익을 겪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취재해 전해줘야 뉴스의 완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앞으로 특파원이 외신 기사를 전재하여 국내에 소개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전재보다는 보강 취재를 통해 국내 시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객관성을 근간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굳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지난 5.6~7일 메트릭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를 하고 5.8일 자체 방송을 통해 공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에 따르면 연합뉴스TV가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는 지난 5.8일 공표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1건이 유일해, 전례가 없는 일로 보임. 반면 경쟁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경우 331건이 등록돼 있어 대조적이었음. 여론조사는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조사치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데다 최근 여론조사 홍수 속에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뉴스의 객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 굳이 정치적·정파적 해석이 불가피한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할 필

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 물론 여론조사의 결과는 객관적 참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따라서 연합뉴스TV가 참고 수준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임. 하지만 여론조사는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할 수밖에 없어 정치색 없이 객관적인 뉴스를 내보내 연합뉴스TV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1년 후 있을 지방선거로 인해 앞으로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하는 것이 객관성이 근간인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치와 신뢰를 더 높이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지진 관련 분석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는 지적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커지고 있는 한반도 지진 위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취재해보겠습니다.
- 말씀하신 특파원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을 겁니다. 특파원 기사가 특파원 기사로서의 장점이라든가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히 외신을 전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도 담아야 되고 조금 더 보완 취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특파원이 미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리포트를 해야 되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력, 시간의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성의의 부족 때문이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여론조사 문제는 업체가 난립하고 정파성이 있고 불공정한 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한 조사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샘플이 1천 명으로 많구요. 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ARS조사가 아니라 전화면접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5~7%에 불과한 데 비해서 저희는 18.5%였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정치파트에서 문항 등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매달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조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신석 위원

- 2023. 5. 15 : 연합뉴스TV의 [썬속뉴스]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유는? 보도 내용,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합뉴스TV의 썬속뉴스 보도에서 英 석학 웨이드 엘리스 교수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된 팩트 체크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를 대변하는 듯한 내용을 자막으로 보도하고 종료 되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균형을 잃은 보도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방송보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사 마다 다른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 시청자들로서는 어떤 관점을 두고 보도 내용을 신뢰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드 엘리스 교수'의 신뢰성을 담보로 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전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각종포럼,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주관 국회에서의 원자력 초청간담회 등에서 포장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한 시점에서 연합뉴스TV [썬속뉴스]의 핵화학 웨이트 앨리슨 교수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유는?의 보도 내용을 보았을 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을 국민들과 국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진다. 특히 보도 내용을 보면,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거듭 주장: "체내 축적되지 않아 먹이사슬 통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 앨리슨 교수는 방사선과 핵물리학 40년 이상 연구해온 학자~~~~~위 보도 내용을 볼 때 연합뉴스의 자막보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해 주는 방송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가진 사회적 이슈 상황이다. 이런 중대 사항을 IAEA의 보고 자료 인용이나 전문가들의 연구자료 인용보도 없이 핵화학 웨이트 앨리슨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균형 잡히지 못한 공정이 결여된 보도라고 판단된다. 타 방송사에서는 G7 앞두고 "오염수 방류 반대"~~(K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고 미국방사능 전문가 심각한 경고(KBS), 후쿠시마 '삼중수소'가 무해? 美 연구진 실험으로 '일축'(MBC) 등등, 결론적으로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한일 일정합의와 시찰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웨이트 앨리슨 교수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논점이나 팩트에 대한 비교분석 보도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한 것은 국민들에게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행위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연합뉴스TV의 신뢰성을 실추 시키는 보도행위이다. 이런 보도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해당 '썬속뉴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TV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전용 콘텐츠인데요.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청자들한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관련부서에 알아보니 타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된 아이템이라 화제가 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날 것으로 빠르게 보여준다는 해당 코너의 콘셉트에 맞게 처리했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당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강건기 위원

- 5. 5 일자 뉴스"청소년 '비만 불평등'...부모 학력·소득 등 영향" 보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15년 사이 2배 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은 연대 의대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81만 여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06년 5.9%에서 2020년 11.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계량화해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따져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순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스에서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준거처럼 보도한 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에 영향을 주는 응답 항목이 상당

히 많음에도 비만 유병률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비만 유병률이 15년 사이에 왜 두 배가 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81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2배 증가했다는 연구팀의 결과만을 전달해서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먼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조사목적,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동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온라인 조사로서 모집 학교 학생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학생의 주관적 판단자료에 의존).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조사내용 (kdca.go.kr)

- 5. 16일자 뉴스 1번지에서 자막 “젤렌스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있어”쯤에서 진행자가 대담 시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한국 방문을 설명하면서, 젤렌스카 여사가 윤석열 부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였으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청소년 비만 관련 보도는 리포트가 아니었고 아마 단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는 단신이 30~40초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단신 짧은 분량 안에 이런저런 거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완성도가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의 실수입니다. 자막 같은 경우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직함을 생략하고 윤석열 부부 할 수도 있고 윤 부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가피하지 않을 때는 직함을 넣는 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멘트에서 직함 없이 윤석열 부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처사구요. 아마도 경험이 부족한 앵커가 엉겁결에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시청자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 2023. 5. 22. 07:26:12 출발 600 “여성 노린 주거침입 기승...”, 여성의 뒤를 쫓아 거주지에 침입하여 성범죄 등을 의도하였으나 직접적인 성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죄 등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공포나 그 범죄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였던 기사 내용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1분 40초가 지나면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 하체 부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촬영 자체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와 그러한 자료 화면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짧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성관념이 그 기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무심코 이러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촬영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그 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영상 편집을 좀 부주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으면 무의식 중에 노출이 심하면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연관성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편집부에 성범죄 사건의 편집을 할 때는 좀 각별히 유의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출근길 인터뷰] 본격적인 '모내기철'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 모내기철을 맞아 농업인구 절대부족, 고령화 심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본다는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정확한 관련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목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캐스터의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만 언급하고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농업인구 절대부족, 고령화 심화는 이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모내기철을 맞아 한 번 더 정확한 수치 제시를 통해 알려준다는 취지인 것인지? 차라리 농업인구 절대부족, 고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나 정부 정책, '농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 불법체류' 등의 연관 이슈를 다루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23.2.3.부터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더구나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9%나 되고 일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뷰에서 다루는 모내기철 벼농사 분야는 실제로는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분야도 아니고 일손 부족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였겠으나 이미 시청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만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출근길 인터뷰'가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기자가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기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출근길 인터뷰에 기자 한 명을 배치하면 거의 그 기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상황이 돼서 기자 대신 리포터로 저희가 대체를 했는데요. 리포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처럼 정교하게 구성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데스크링 과정에서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이라고 이렇게 자막을 넣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출근길 인터뷰 담당하는 리포터와 데스크에게 작성 과정에서 유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지난 5월 22일 출발600에서는 '한국영화 부진 길어지나... 할리우드 대작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기사 주제로 한국영화 부진을 우려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나

한국영화와 해외영화 관객 수 추이 등을 비교하면서 한국영화가 부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보도 내용 대부분이 5~6월에 개봉될 해외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홍보성 보도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영화가 부진한 상황 외에 그 원인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사회평가 좋고 더빙을 유명 연예인이 해서 관심받는 인어공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트랜스포머', '칸 폐막작 엘리멘탈', '15년 만에 찾아오는 전설적인 인디애나 존스 마지막 시리즈' 등 개봉을 앞둔 영화를 소개하고, 이 영화들은 제작비가 수천억 원대라는 등의 내용이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사 주제와 보도 내용이 불일치되는 느낌을 주거나 홍보성 보도로 느껴지는 내용의 구성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메인 하단부에 '많이 본 콘텐츠' 항목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이는데, 광고가 섞여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록 앞에 [AD]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자료처럼 노출되는 광고도 있어 이용자에게 거부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서 노출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한국영화 부진 길어지나...할리우드 대작 줄줄이 대기 중' 이런 제목을 단 거는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용 자체가 대부분 해외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영화 부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성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 기사를 쓰지는 않지요. 사실 영화나 책 소개 이런 건 홍보성 느낌을 완전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보시는 분에 따라선 홍보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선별 기준을 제대로 갖고 시청자들에게 정말 소개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면 그나마 그래도 홍보성이라는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청자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진 영화나 책을 소개한다면 진짜 홍보란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많이 본 광고 콘텐츠 이거는 저희 광고사업쪽의 얘기로는 네이티브 형식의 광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 같지 않은 광고죠. 그니까 웹 페이지라든가 앱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녹아들어가는 광고 방식인데 자칫 하면은 진짜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선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부럽지만 나하곤 상관없어"...쪽방촌 쓸쓸한 어버이날(5.8), 올해의 어버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어버이날이었기에 부모와 자식의 따로 사는 경우에 가족 간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애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연합뉴스TV는 가족이 모여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버이날마저도 그저 남의 일처럼 홀로 외롭게만 지낼 수밖에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보도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였습니다. 연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들의 이날 일상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행복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곳곳을 비추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추는 연합뉴스TV의 지속

적인 뉴스 보도를 기대합니다.

- "코인 손실 보상해드려요"...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5.9), 최근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날 뉴스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해 피해자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고는 잠적해 피해자를 두 번 올리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이 며칠 후에 보도한 점을 보더라도 연합뉴스TV가 가장 먼저 보도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이 방송으로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의 신속성과 뉴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주식 리딩방'에 이어 요즘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시세조종,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빙자한 사기 등 새로운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고, 이에 대해 막대한 피해액과 범죄조직 검거 및 강한 처벌 등의 뉴스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유형, 대응책 등을 총망라한 심층 분석 보도가 나올 법도 한데 아직은 딱히 이러한 보도가 보이질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이자 공영언론의 선두인 연합뉴스TV에서 가능하다면 시청자를 비롯해 국민에게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심층 기획보도를 추진하길 기대해 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도 계속 이어나가겠고요. 신종 보이스 피싱은 워낙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표적인 신종 피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공감하는 게 연합뉴스TV를 우리가 브리핑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막 및 자막 시스템에 관해서는 연합뉴스TV 경영진 측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매번 같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례회의를 마치겠습니다.(끝)